

#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미니 총선 현실화

### 민주당-민평당 중심 입지자들 수면 위로...재보궐 최대 7곳 예상



바른미래당 송기석(광주 서구 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8일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면서 광역단체장 지방선거와 맞물려 광주·전남 최대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등 미니 총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무상실형을 받는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 여원을 선고받는데 이어 이날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이 확정돼 당선 1년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돼 있어 이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에는 4~5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해자 서구갑 지역위원장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非) 여권에서는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견태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신중하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지역에서도 서삼석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과 이운석 전 국회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처사도 공직 사퇴와 함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도 최대 5곳에 이른다.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각각 1곳,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각 1곳씩, 통틀어 최대 5명의 의원직 사퇴가 예상된다.

광주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평당에서는 김경진(광주 북구을), 천정배(서구을) 의원의 출마설이 퍼져오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개호(담양·합평·영광·장성)이 출마를 강행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여수을) 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민평당에서는 박지원(목포),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없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했으나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도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제33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통상 당내 경선이 선거일 30일 이전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경선 나머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당을 대표해 해당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며 특권 불식 차원에서 의원직은 사퇴하도록 돼 있어 입지자들 입장에서 '작은 도박' '정치적 승부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제감치 복수의 입지자들이 불발 활동을 벌이며 정치적 보복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현직 의원들의 경우 낙선할 경우 백수로 전락할 수 있고 당에서 원내 1당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역 출마를 자제시키는 분위기도 커 유동적이지만 어쨌건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선까지 함께 치러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때 따라 공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제감치 복수의 입지자들이 불발 활동을 벌이며 정치적 보복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현직 의원들의 경우 낙선할 경우 백수로 전락할 수 있고 당에서 원내 1당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역 출마를 자제시키는 분위기도 커 유동적이지만 어쨌건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선까지 함께 치러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

# '3선 전남지사' 역임 박준영, 과욕이 부른 불명예 퇴진

### 과거 가난·고난 딛고 운명 개척...지역정가 "아쉽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72)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과 함께,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인륜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 3선 도지사, 국회의원 등 화려한 정치 역정을 걸어왔던 박 의원은 역대 최연소 수감자를 앞두고 있다.

3선 도지사 출신이지만,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박 의원은 결국 불법 금품수수로 인해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운 좋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그동안 평가받았다.

중앙일보 기자와 해직, 복직에 이

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4년 박태영 지사 유고에 따른 재보궐선거의 승리에 이어 연거푸 3선을 달렸다.

그는 가난과 좌절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듯 소외와 낙후의 상징인 전남의 새로운 운명을 일구기 위해 뛰었고 친환경농업과 IT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IT, BT산업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었다.

성과도 많았지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실패한 IT경기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박 의원은 지사직 퇴임후 정계은퇴가 예정됐지만,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

타당한 아권분열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들어가 공천권을 따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입당 직전 자신이 주도한 신민당 창당과정에서 같은 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8200만원을 받은 것이 폭소가 됐다.

과거 가난과 고난으로 접철했던 가나간 터널이 있었기에 그의 성공이 더욱 빛을 발했던 만큼이나, '3선 도박'의 불명예스런 말로에 대해 아쉬움도 크다는 반응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3선 도지사까지 지낸 박 의원이 은퇴후 지역의 원로로 남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며 "과욕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투 운동 동참

우원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심평등 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흰 장미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 이재용 석방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20만 넘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사흘만에 20만명이 넘었다.

5일부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0만549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

해 읊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지역구감리위원회 전문직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